

한국성·아시아적 정서 주목...사물에 담긴 고유 언어 마주하기

ACC 포커스 기획 전시 '구분창: 사물의 초상'...내년 3월30일까지

3개 섹션...역사적 배경 품은 백자·금관 유물 연작·인물 초상 한자리
미공개 영상 작품 '코리아 판타지' 최초 공개...미니 다크 영상 상영도



ACC 포커스 '사물의 초상' 전시장에서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 구분창 작가.

한국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인다.

ACC는 그 첫 번째 초대작가로 구분창 작가를 선정, '사물의 초상'을 주제로 전시를 꾸렸다. 주로 2000년대 이후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전시에는 크게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1부 '역사를 품은 사물에 숨결을 입히다'에서는 한국 전쟁 유물, 조선백자, 신라금관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품은 유물 연작을 만날 수 있다.

해외로 유출된 백자를 찍은 사진 '백자' 연작들이 전시장 10m 높이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미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백자의 영혼이 떠다니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대형 라이트 박스에 담긴 '황금' 연작은 마치 땅에 묻힌 신라 금관을 떠올리게 한다. 신라시대 황금 유물이 가진 화려하고 섬세한 미감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사진 작품이다.

'일상 속 사소한 사물을 발견하다'를 주제로 한 2부 전시에서는 작가의 미공개 영상 작품 '코리아 판타지'를 최초 공개한다. 한국 전통문화의 모티프 중 하나인 '단청'을 변주한 영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작가의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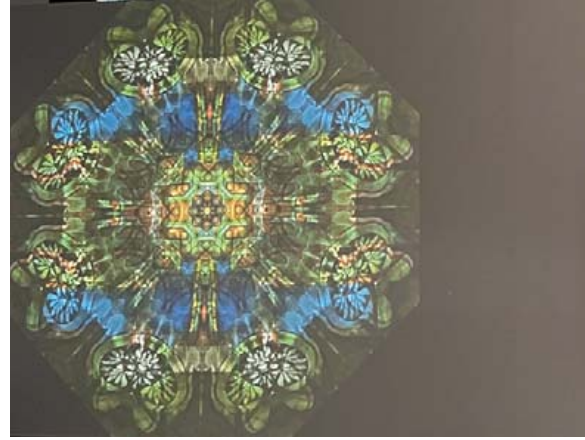
여러 개 가벽을 세워 양면에 각각 '탈' 연작과 '꼭두' 연작을 배치해 놓은 전시 구성도 돋보인다.

또 15세기 무렵 프랑스 고건축물 장치인 '샤스루(chasse-roue)'에 주목한 '샤스루' 연작과 빈 상자 혹은 빈 공간을 주목한 '인테리어', '오브제' 등 다양한 연작도 전시 중이다.

전시장 한쪽 공간에서는 작가가 선택한 일상 사물인 '비누' 연작을 향기로운 비누 향기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구분창의 시선과 마주하다'에서는 작품 속 피사체인 작가의 수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대중매체와의 협업 작품, 소설가 한강, 배우 안성기, 김지훈 등 그동안 촬영했던 예술인들의 인물 초상 작품도 선별해 선보인다.

이와 함께 구분창 작가, 그래픽 디자이너 아마구치 노부히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서영희, 미술사학자 이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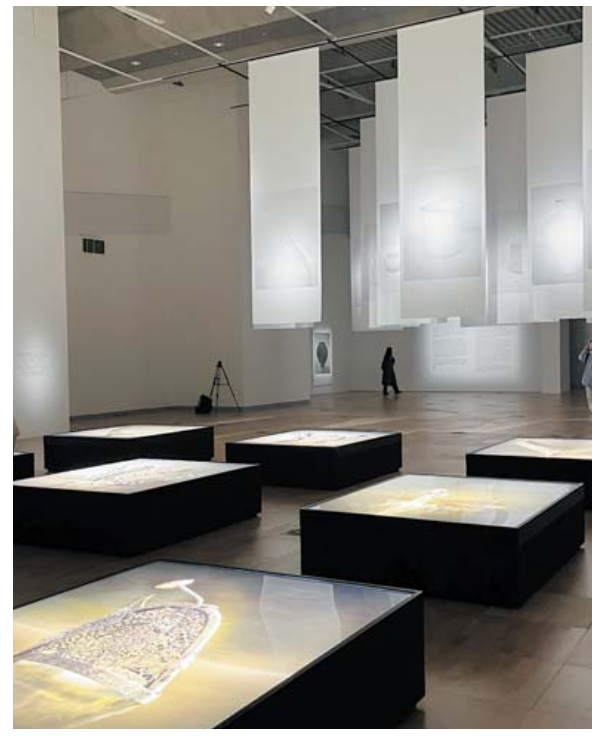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된 미공개 영상 작품 '코리아 판타지'(앞쪽)와 가벽에 설치된 '탈' 사진 연작.



'꼭두' 연작

사진작가 김수강의 인터뷰를 담은 미니 다크 영상도 전시 기간 상영될 예정이다.

구분창 작가는 "인간과 사물이 얽혀 역사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조그만 사물 하나라도 사람의 끊임없는 손길을 거치며 어떤 형태를 지니게 된다"며 "이번 전시는 주요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사물' 연작에 집중했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작품이 많다. 그 속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3월30일까지. /글·사진=최명진 기자



10m 높이에 설치된 '백자' 연작(위)과 대형 라이트 박스에 담긴 '황금' 연작

사물에 깃든 이야기, 문화상품으로 만나다

ACC재단 '구분창: 사물의 초상' 연계 상품 3종 출시

"전시 연계 상품을 통해 사물에 깃든 이야기 만나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최근 개막한 2024 ACC 포커스 '구분창: 사물의 초상' 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 3종을 개발해 출시했다.

ACC재단은 이번 전시 작품 중 ▲인테리어 ▲비누 ▲콘크리트 광화문 등의 연작 총 7점을 활용해 한지 달력과 마그넷, 렌티큘러 엽서 총 3종의 상품을 개발했다.

한지 달력에 담긴 '인테리어 40(2007)' 작품은 '비어버린 공간과 텅 빈 상자는 우리에게 어떤 온기를 남겼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작

업이다. 여기에는 빈 공간 속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흔적을 찾아내려 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 달력 상품은 한지 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함으로써 사진과는 다른 질감과 색감으로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

쓰다 남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비누를 모아 뒀다가 촬영한 '비누' 연작은 마그넷 세트와 구성했다. '비누' 연작은 각각의 비누가 간직한 사적인 역사에 주목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작품이다.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그중 4개의 작품을 선정, 상품으로 제작해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광화문' 연작은 렌티큘러 엽서로



렌티큘러 엽서로 제작한 '콘크리트 광화문' 연작

제작했다. 이 연작은 1968년 당시 어려웠던 경제 상황 속 철재 콘크리트 위에 단청 문양을 입혀 마치 목조건물처럼 보이도록 한 광화문의 단청 등 철거 모습을 담았다. 화려한 전통 단청과 토막내 잘린 듯한 콘크리트 단청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작품의 모습을 엽서로 감상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캠프' 성료

국립광주과학관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지난 14-15일 '미리 크리스마스 가족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과학으로 만나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3D펜으로 꾸미는 우리가족 크리스마스 트리 ▲별빛천문대에서 만나는 12월의 밤하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3D펜으로 가족의 의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을 제작했다.

밤에는 별빛천문대에서 12월에 만나볼 수 있는 겨울철 1등성을 관측하며 가족끼리 추억을 쌓았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화석을 캐러 떠나는 자연탐사 캠프를 비롯해 생명과학 분야 실험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3D펜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작품을 만들고 있다.

진행하는 생명과학 캠프 등 더욱 다채로운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